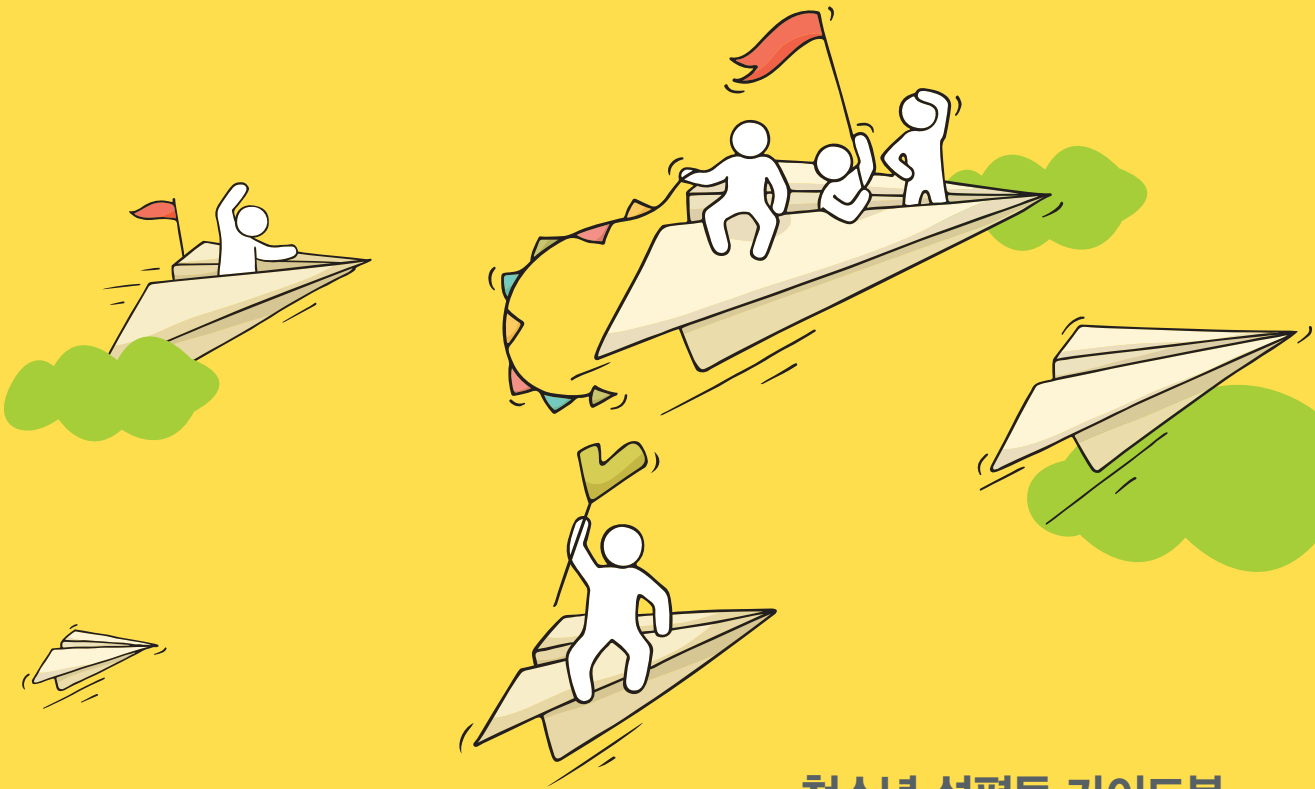


성평등! 나를 나답게, 자유롭게



청소년 성평등 가이드북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CONTENTS

1. 다름에 대한 강요

여자, 남자 같고도 다른 우리	05
남자다운 척, 여자다운 척	08
남자 만들기, 여자 만들기	11

2. 여자! 남자! 평등하다고 생각해?

집에서는 어때?	17
회사에서는 어때?	21
우리의 공간, 학교는 어때?	28



3. 혐오, 상대방에게는 잘못된 표현

혐오에 대한 청소년의 반응	31
혐오에 대처하는 자세!	36
혐오 표현을 하는 이유	37

4. 성평등! 나를 나답게 자유롭게

청소년의 성평등 인식	39
여자다운 게 어딴어? 남자다운 게 어딴어? ..	40
OO다움의 박스에서 탈출하기	42
선생님을 위한 활용 팁!	47

성평등 그게 뭐지?



성평등이란

‘성별’ 때문에 차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라는 이유로,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제약받거나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성평등은 곧 우리의 행복에 관한 것이에요.

성별에 관계없이 개성을 존중받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사는 것 말이죠.

성별에 따라 서로 나누고

우열을 가리는 ‘성차별’이라는 편견을 넘어서,

다름을 받아들이고 화합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성평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다름에 대한 강요

“여자가 OO하고 그래~”

“남자가 OO하고 그래~”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기분이 어땠나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나요?

이 말은 여자와 남자가 성별에 따라

정해진 역할과 행동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출발해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각각 정해져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자라서, 남자라서 OO해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제약해요.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특성이나 개성이 있는데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르면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행동하기를 강요받게 되지요.

여자와 남자는 달라야 해! 라는 고정관념은

옛날보다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나의 행동을 막습니다.

또한 나쁜만 아니라, 누구든!

성역할에 갇히지 않고 원하는 대로 행동할 자유가 있어요.

때문에 고정된 성역할에 따르지 않거나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공정하지 않게 대한다면 그것은 ‘차별’입니다.

여자, 남자 같고도 다른 우리

✿ 혹시 나한테도 고정관념이?!

나도 모르게 생긴 성역할 고정관념을 체크해보세요

◎ 여자, 남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단어와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왜 그런 이미지와 단어를 떠올렸는지 친구들과 이야기 해보세요

◎ 어느 쪽이 남학생 방이고 여학생 방일까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 여자와 남자, 그러면 왜 안 돼?

◎ 괄호 안에 어울리는 단어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가
왜 이렇게 거칠어

()가
왜 울고 그래

()가
왜 이리 힘이 세

()가
찌찌하게

()가
겁도 없이

()가
왜 이리 소심해

()가
칠칠지 못하게

()가
왜 이리 약해



친구들은 어떻게 썼는지 비교해 보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서로 의견을 나누어보세요



◎ 아래 말은 성격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인데, 가끔 여자와 남자의 특성을 구분할 때 쓰기도 하지요. 여자와 남자 중 누구에게 더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하나요?

용감하다

(연결해 보세요)

안전하다

독립적이다

경쟁적이다

적극적이다

씩씩하다

조신하다

감성적이다

상냥하다

이성적이다

섬세하다

의존적이다



◎ 그렇다면 나의 성격은 어떤가요? 나를 표현하는 단어를 골라보세요.



성별로 나눈 특성과 나의 성격은 어떻게 다른가요?
비교해 보고 친구들과도 의견을 나눠보세요.

남자다운 척, 여자다운 척!

성역할 고정관념은 우리의 감정 표현을 제약하고,
내 감정과는 다른 억지스러운 행동을 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여자다운 척, 남자다운 척! 실제의 나와 다른 모습으로 행동한 적이 있나요?

◎ 우리 교실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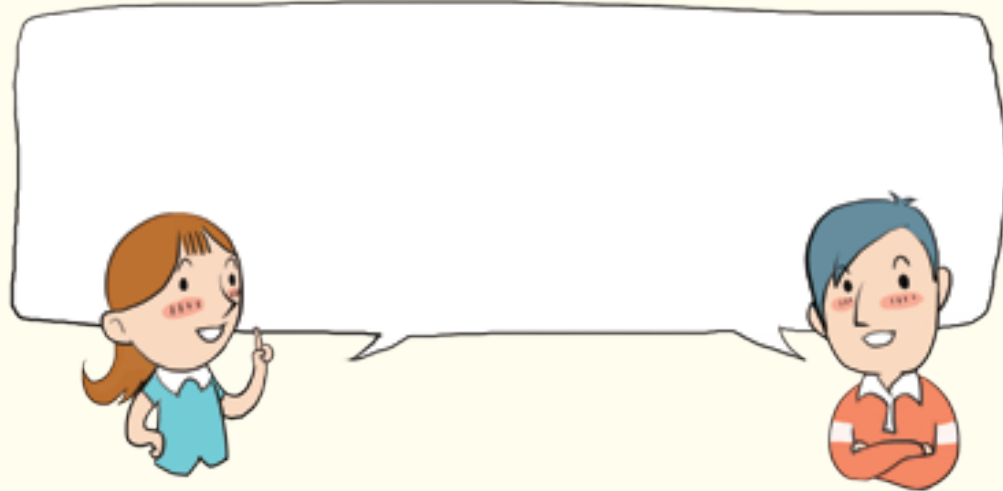
만화 속 주인공들이 어떤 느낌일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 나! 이럴 때 ‘남자다운 척’, ‘여자다운 척’ 해 봤다

여자, 남자답지 못해 보일까봐 내 생각이나 감정과 다른 행동을 한 경험이 있나요?

왜 그랬는지 함께 이야기 해 보세요.



남자 만들기, 여자 만들기

성역할 고정관념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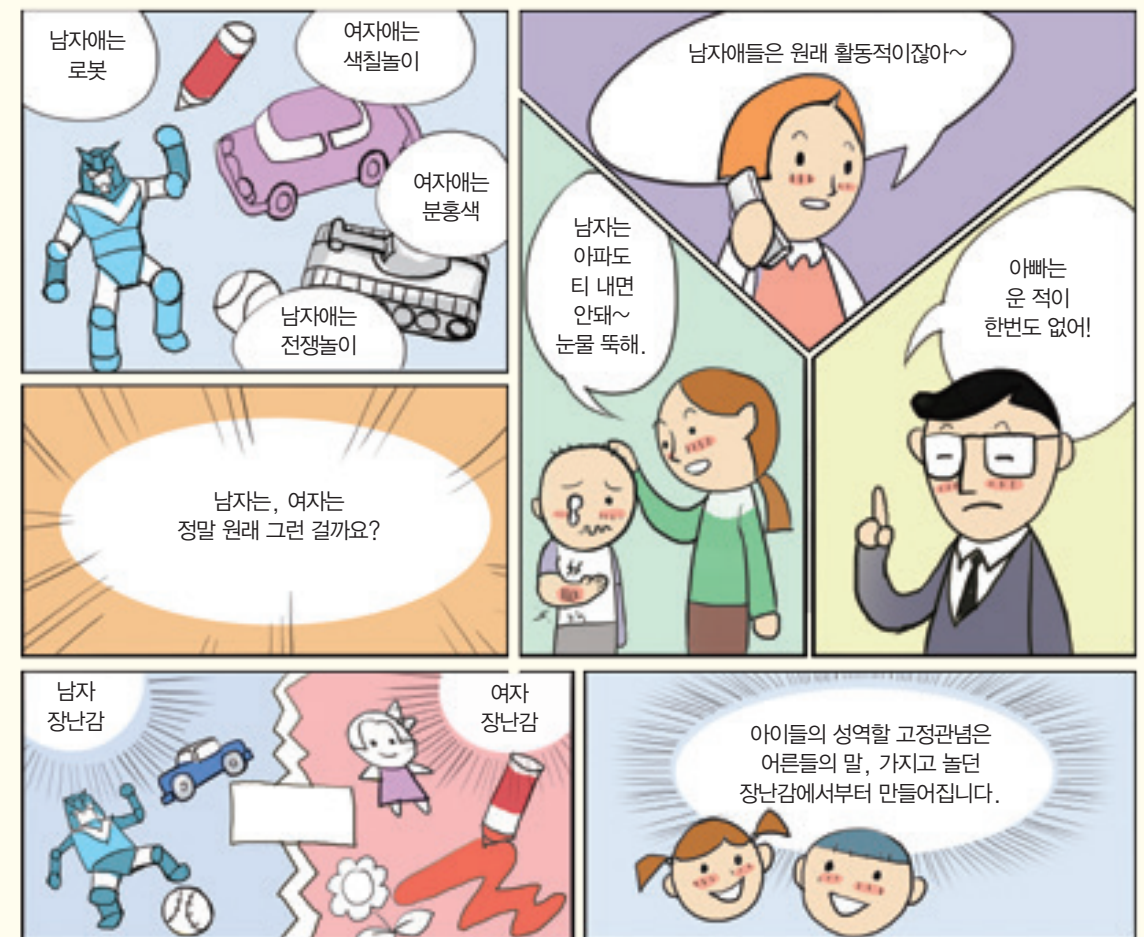
가족, 놀이문화, 대중매체, 학교교육, 또래집단....

다양한 요소들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만들어냅니다.

함께 사는 가족과 친척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어린 시절 장난감과 놀이를 통해,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게임을 통해,

학교선생님과 친구들을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은 나도 모르는 새에 생각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 가족이 만드는 성역할 고정관념

우리의 일상 속 성역할 고정관념이 만들어지는 첫 번째 순간이죠.

우리가 태어나 처음 접하는 세상인 가족은

성역할 고정관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가 나를 대할 때, 딸과 아들로 나누어 대하거나

형제·자매가 여자다운 혹은 남자다운 모습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성별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가족의 태도는 우리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 나, 이런 경험이 있다!

내가 여자라서, 남자라서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다르게 대한 경험이 있다면 적어보고

그때 느낀 기분도 말해보세요.

✿ 대중매체 속에 숨어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

TV 프로그램이나 웹툰, 인터넷 동영상 등 대중매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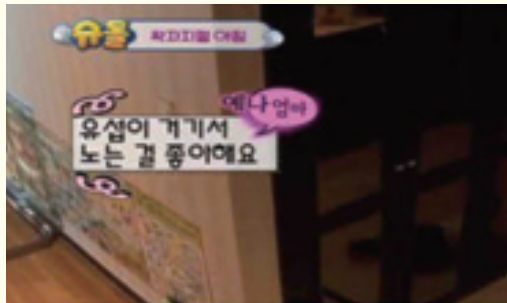
여자, 남자는 '이렇게, 저렇게 행동해야' 하는 것으로 그려질 때가 많아요.

대중매체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쉽게 일상에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큼니다.

성역할에 대한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접할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화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 남편은 반말, 아내는 높임말?

- 존댓말이 없는 영어 대화를 번역하면서 남편은 반말, 아내는 높임말 사용
- 똑같은 부모인데 남편은 이름으로, 아내는 누구 엄마로 구분



● 나도 찾을 수 있다! 내가 찾은 미디어 속 성역할 고정관념

내가 본 드라마, 예능, 광고, 웹툰 속 성역할 고정관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적어보세요.

✿ 이성교제에도 성역할 고정관념이 있다!

사춘기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사귀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입니다.

그런데 이성교제를 할 때,

성별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나눠지기도 하는데요.

여자와 남자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고백은 주로 누가?

데이트 비용은 주로 누가?

이벤트는 주로 누가?

스킨십 요구는 주로 누가?

● 사실 이런 게 불편했어! 멋지게 사귀려면 이렇게!

사귀는 사이에서 바꾸고 싶은 게 있었다면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그리고 서로가 평등하게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친구와 함께 이야기 해보세요.

여자! 남자! 평등하다고 생각해?

100여 년 전 만해도

여자는 지성이 부족하다며 대학을 가지 못했어요.

좋은 직업이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니 남자들이 기피하는 일을 했고
자신의 의견을 대표해줄 사람을 뽑는 투표권도 가지지 못했지요!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얻기 위해 싸운 여성들 덕분에 차별이 사라지면서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높아졌고 사회진출은 늘어났으며
지금은 남성 고유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여러 분야에도 진출하여 함께 경쟁하는 세상이 되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성차별이 사라졌다고 말하기도 해요.

남자가 차별 받는 세상이라며 역차별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물론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더 나아졌어요.

하지만 아직 성평등하다고 말하기에는 여전히 차별이 남아있습니다.

나라별 여성 투표권이 확보된 시기

나라	연도	나라	연도
대한민국	1948년	덴마크	1915년
뉴질랜드	1893년	미국	1920년
호주	1902년	영국	1928년
핀란드	1906년	프랑스	1944년
노르웨이	1913년	사우디아라비아	2015년

집에서는 어때?!

과거에는 여자와 남자가 하는 일이 서로 달라야 했죠.

남자는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고, 여자는 집에서 가족을 돌봐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여자도 회사를 다니고, 사회활동에도 참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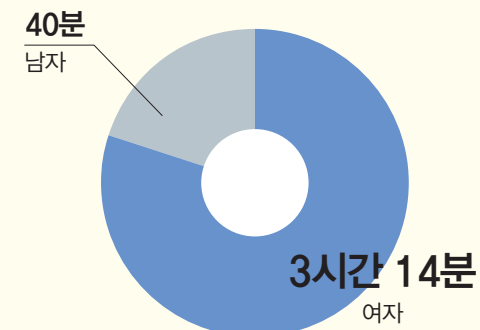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안일과 육아를 책임지는 것은 여성의 역할로 인식돼

여성의 경제·사회 활동에 불이익을 줍니다.

❁ 회사일은 똑같이, 집안일은 다르게?!

◎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 출처 : 2016년 일·가정양립 지표,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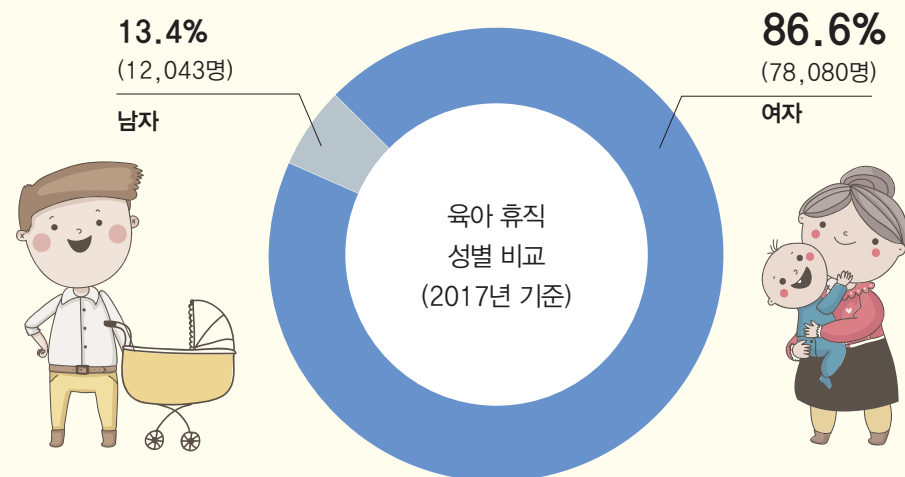
◎ 아직도 부엌은 여자의 공간?

아래는 어떤 친구가 집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우리 집과 비교해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 육아는 엄마만의 책임?



※ 출처 :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04)



생각해 볼 거리

육아는 엄마와 아빠가 같이 하는 '부모의 일'!

집안일과 육아를 누가 할지는 성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여자가 집안일과 육아를 맡지만

중국 자바족의 경우에는 남자가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합니다.

여자와 남자의 역할이 달라지면서 주로 여성이 집안일과 육아를 맡았던 나라들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아빠 육아모임이 활발해 육아에는 성별이 따로 없다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모임을 만들었을 때는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점차

그 수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아주 큰 조직으로 발전했습니다.

육아를 같이하는 아빠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아이를 돌보는 일은 엄마만의 일이 아니라 아빠도 같이하는 '부모의 일'이라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 출처 : 열명 중 한 명은 '아빠육아휴직'
2017. 4.20. 세종경제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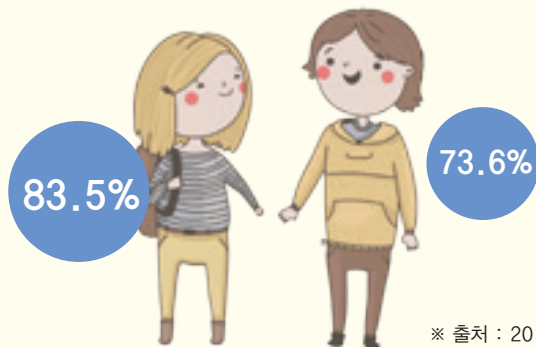


※ 출처 : "스웨덴 · 덴마크는 다르다" 북유럽에서 찾는
가족친화 기업문화 2017.12.11. 여성신문

❁ 가사노동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청소년들에게 물어본 결과,
성인에 비해 '남녀가 같이 해야 한다'고 성평등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 '가사노동은 부부가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에 대한 반응



※ 출처 : 2017년 청소년 통계, 여성가족부,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여학생과 남학생 사이에는 생각에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친구들과 토론했습니다.



● 우리 집은 누가 집안일을 하지? 평등할까?

우리 집의 가사노동은 누가 하나요? 아래 표를 채우고 어떻게 나누면 더 좋을 지
생각과 의견을 말해봅시다.

집안 정리 (담당 :)	쓰레기 분리수거 (담당 :)	설거지 (담당 :)	청 소 (담당 :)
빨래 (담당 :)	음식 준비 (담당 :)	기타 (담당 :)	

회사에서는 어때?!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삶을 살고 싶나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그릴 것입니다.

과거에는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대부분 남자였지만

지금은 여자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꿈을 펼치고자 합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같은 꿈을 꿀 수 있어야 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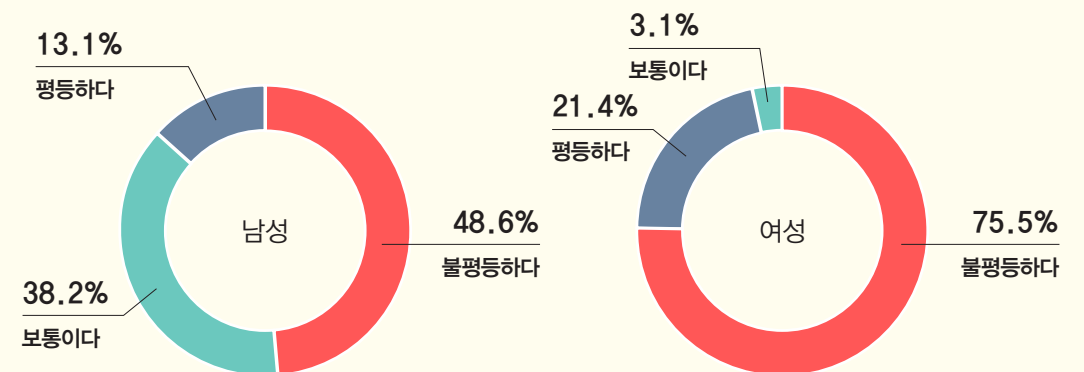
아직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동등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구하는데서, 임금에서, 승진에서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 회사에서도 성차별이?

취업과정이나 직장생활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할까요?

남성이나 여성 모두, 직장생활이나 취업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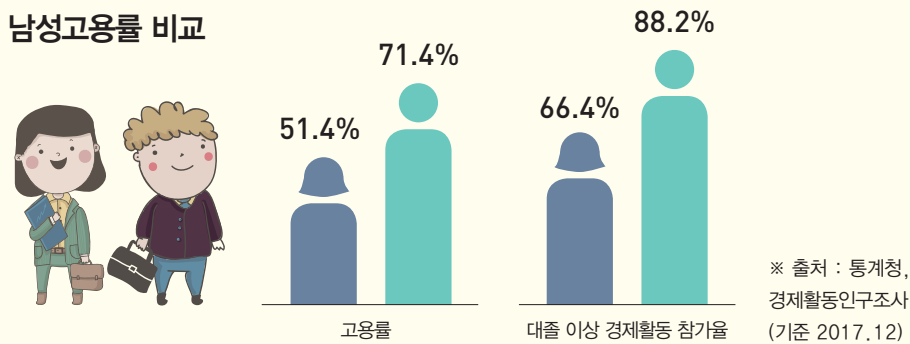


※ 출처 : 양성평등 인식조사, 여성가족부, 2016년

✿ 일하는 여성들이 겪는 회사 세상~

과거에는 '직장생활은 남성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해 여성의 취업률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학력 차이가 없으며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가진 여성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 성차별이 있는 걸까요?

◎ 여성, 남성고용률 비교



◎ 왜 남자보다 여자의 고용률이 더 낮을까? 그 이유를 찾아 볼까요?



생각해 볼 거리

존과 제니퍼의 이력서가 말해주는 것!

미국의 예일대에서 이공계 분야에 성차별이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이력서에 하나는 존(남자 이름)이라고 쓰고, 다른 하나는 제니퍼(여자 이름)라고
쓴 뒤 여러 대학의 연구실에 보냈습니다.
이력서에 대한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모든 연구실에서 존을 더 유능한 사람으로 여기며
더 높은 월급을 주겠다는 답을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이 실험은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객관적인 실력이 아닌 성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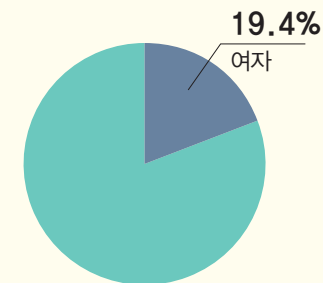
✿ 직업의 세계에도 여성과 남성이 있을까?

직업 세계는 여자의 일과 남자의 일이 구분되기도 해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나 돌봄이 필요한 일에는 여자가 많고
과학기술 및 건축 분야는 남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의 수는 적습니다.

◎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취업을 많이 하는 분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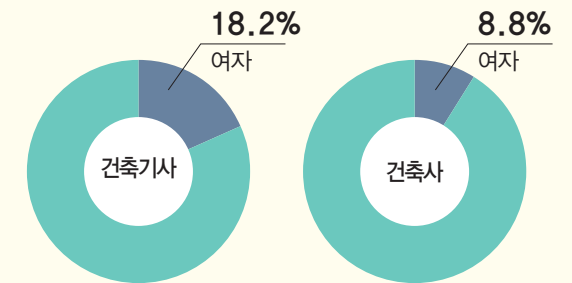


◎ 과학기술분야



※ 출처 : 2015년 WISET 여성과학기술인력실태조사

◎ 건축분야



※ 출처 : https://www.masilwide.com/wide51_news_women-2/

◎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생각해 볼 거리

직업선택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바꾸자!

영국에서는 기술전문 분야 직업에 여성의 고용 비율이 남성에 비해 낮은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학이나 공학은 남자의 영역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해 여성의 진출이 낮은 것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인 'RAF-WISE 직업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은 영국공군(RAF)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10~24세 사이의 여학생이 그 대상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학생들은 일주일 동안 공군부대에서 항공과 통신 공학 분야의 기술 교육을 받고, 체육 훈련과 개인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훈련도 받습니다.



〈영국 공군에서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 중인 여학생들〉



〈보이스 데이 체험에 참가하고 있는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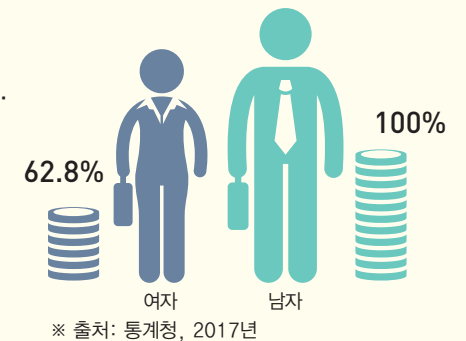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15살의 클레어라는 여학생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엔지니어가 될 생각이 없었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생각을 완전히 바꿨다고 말하고 있어, 여학생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가 직업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독일에서도 직업에서의 성별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5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걸스 데이, 보이스 데이(Girls' day, Boys' day)'라는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직업이라 여겨졌던 기술, 자연과학, IT 등과 같은 직업에는 여학생들이, 여자의 일이라 여겨졌던 간호사, 유치원, 장애인 시설 등 돌봄과 관련된 직업에서는 남학생들이 직업현장 경험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여학생들 가운데 상당수는 클레어처럼 프로그램에서 체험한 직업분야에서 직업실습을 하거나 직업교육을 받고 싶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성별이 다르다고, 월급이 다르다고요?

남성과 비교해 여성 얼마나 받나

여자와 남자는 일을 하고 받는 임금이 다릅니다. 같은 일을 할 때도 여자라는 이유로 더 적은 임금을 받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에도 이런 현상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차이가 아주 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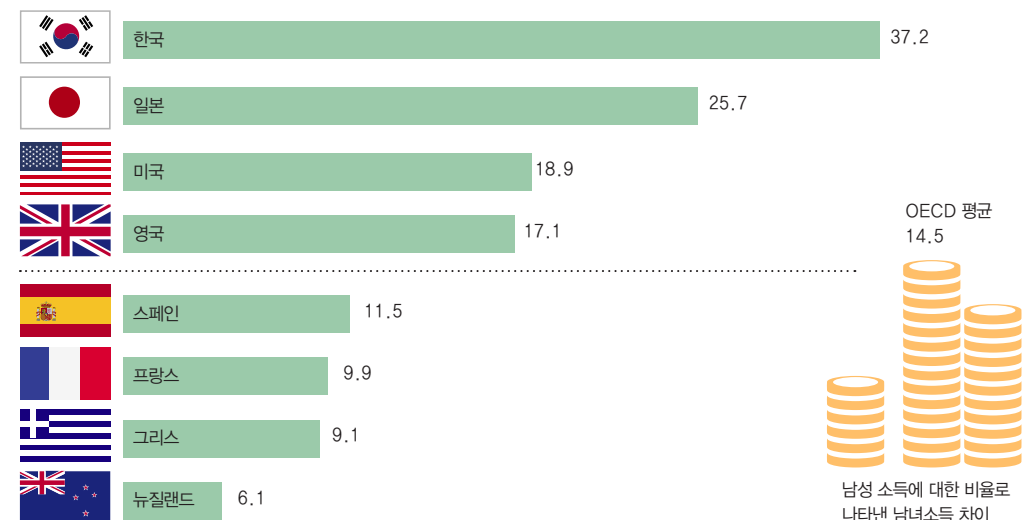


성별임금격차의 원인

”교육연수, 근무연수, 업종, 규모 등 ...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게, 왜 그런지 알 수 없는 이유로 남성은 더 받고, 여성은 덜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명되지 않는 이 차별, 여성의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니까. 나머지 설명되는 차이를 아무리 해소를 해도...”

※ 출처 : JTBC 팩트 체크, 남녀 임금격차 OECD 중 최악? 확인해보니...
<https://www.youtube.com/watch?v=UBZrQI2jEIM>

성별 임금격차 OECD 비교 통계



※ 출처 : 2017 OECD Employment outlook



생각해 볼 거리

같은 직업인데 왜 이렇게 월급 차이가 나지?

같은 직업 안에서 여성과 남성의 임금은 어떨까요?

2015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인 여성 임금은 남성의 58.4%라고 해요.

남성이 1,000원을 벌 때, 여성은 584원을 번다는 이야기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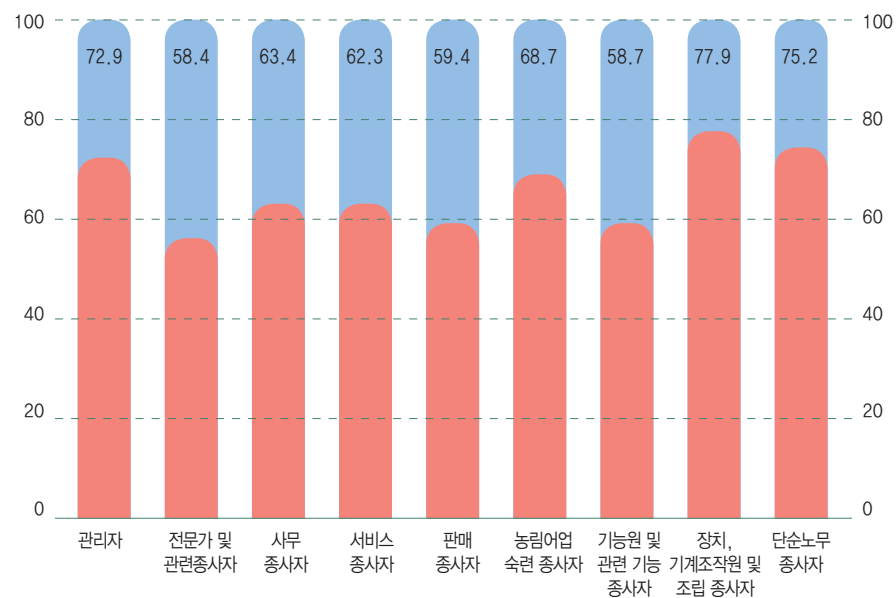
직업별로 차이는 있지만 같은 직업 안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월급이 적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 남녀임금비

※ 여성임금/남성임금*100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직업별 성별 임금격차 (2015)

※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GSIS)

❁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있는 것? 유리천장 !!

취업의 관문을 힘들게 통과해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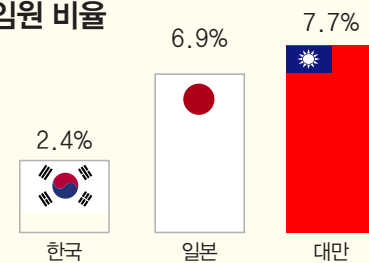
언젠가 임원이나 CEO가 되리라! 고위직으로의 승진을 꿈꿀 수 있겠죠?

하지만! 회사를 둘러보면... 고위직 여성의 숫자는 매우 적습니다.

능력과 꿈을 펼칠 기회를 계속 갖고 싶어도

결혼이나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할 수 없거나 하지 못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 대기업 여성임원 비율



※ 출처: 2017 아시아·태평양 지역 여성 이사회 임원 보고서, 국제여성기업이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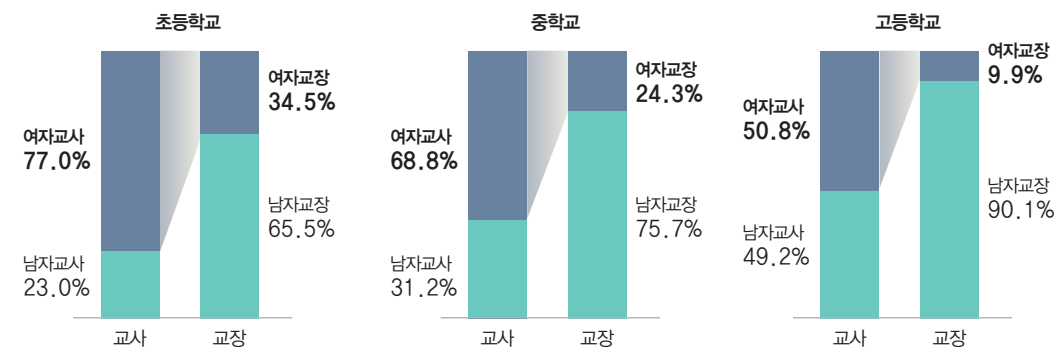


생각해 볼 거리

우리학교 교장선생님은 남자? 여자?

학교에서도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자선생님의 비율이 훨씬 높지만 교장선생님은 남자가 더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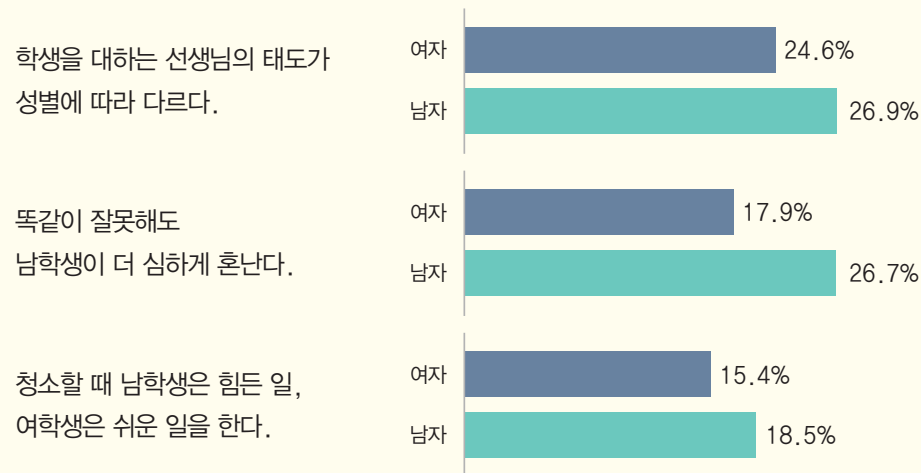
※ 출처: 2017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여성가족부

우리의 공간, 학교는 어때?!!

학교생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성불평등이 있다고 생각해요.

■ 학교생활에서 차별이 있다고 느껴?



※ 출처 : 2016년 양성평등 인식 조사



◎ 우리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 ?! 학교에서 내가 겪거나 본 성불평등한 사례가 있다면 그 내용을 적어봅시다.

◎ 교복에도 성별고정관념이 있어요!

치마는 여자, 바지는 남자, 바꿀 수 없는 것일까?



생각해 볼 거리

여학생은 치마! 남학생은 바지!!

우리나라 학생들의 교복은 대체로 여학생은 치마, 남학생은 바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학생에게는 바지 착용이 허용되기도 하지만 남학생이 치마를 입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더니든노스중학교에는 남학생도 치마를 입을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중학생 교복도 여학생은 치마, 남학생은 바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여학생들이 여자에게만 강제로 치마를 입게 하는 것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학교는 그 주장을 받아들여 모든 학생들이 치마나 바지가운데 입고 싶은 복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 규정을 바꿨습니다. 학생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반바지, 긴 바지, 켈로트(여자용 치마바지), 킬트(남자용 짧은 치마), 치마 등 5가지 중에서 원하는 교복을 마음대로 입을 수 있습니다. 이 학교의 선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혐오, 상대방에게는 잘못된 표현

혐오는 다른 사람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차별행위를 말해요.
'여혐', '남혐'과 같이 단지 성이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여자, 남자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것이지요.

학교에서 이런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나요?

“여자반이라 그런가, 꽃냄새가 난다”

“남자반이라 그런가, 왜 이렇게 냄새가 나?”

“남자는 못생겨도 돼. 공부만 잘하면 다 장가간다!”

“여자가 공부를 못하면 얼굴이라도 예뻐야 남자가 데려가지!”

또한 우리는 '김치녀', '한남충' 같이 상대방의 성을
깎아내리는 표현을 종종 듣습니다.

심지어 '게이냐'(성소수자 혐오), '애자냐?'(장애인 혐오)와 같이
성별뿐만 아니라 외모, 장애, 출신지역 등을 평가하거나 놀리기도 합니다.

그럼, 왜 이러한 혐오 표현이 나타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혐오에 대한 청소년의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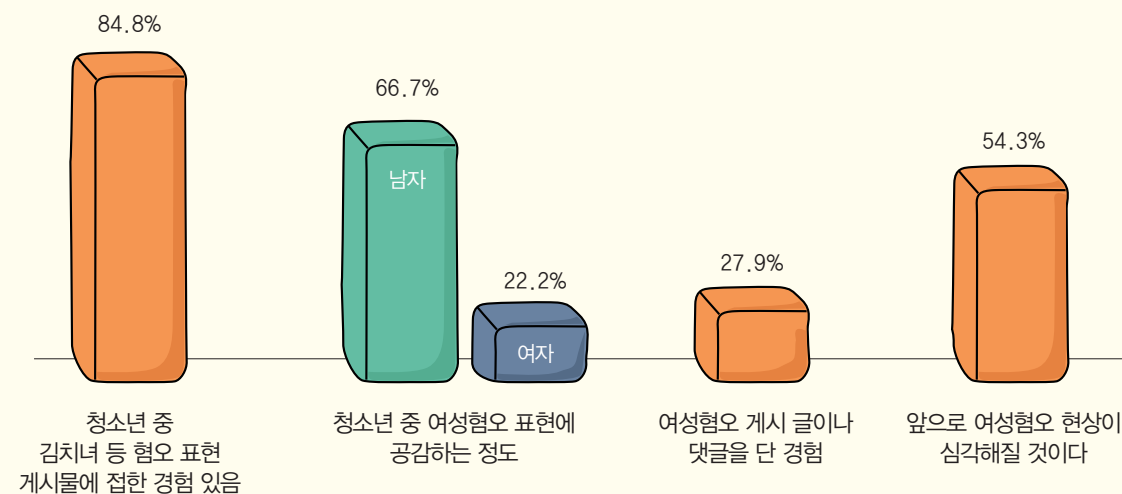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혐오 현상에 대해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많은 청소년들이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답합니다.

혐오표현에 공감하는 학생들의 수도 꽤 많고,

댓글을 달고 직접 참여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아래 조사 내용을 같이 확인해봅시다.



※ 조사대상 :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소년 및 청년층 남성 1,200명, 여성 300명 (총 1,500명)

※ 출처: 남성의 삶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년

❁ 내가 다른 사람을 차별한다고요?

혐오는 특정 대상을 존재 자체로

부당한 대우나 차별, 억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보다 어리다고, 힘이 약하다고, 알잡아보거나 괴롭히는 행동이죠.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 행동을 하거나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나의 행동을 돌이켜 확인해 볼까요?

항목	그렇다	그렇지 않다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한 적이 있다.		
외모나 신체조건을 두고 점수를 매겨본 적이 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놀린 적이 있다.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알잡아 본 적이 있다.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무시한 적이 있다.		
가정형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한 적이 있다.		

확인한 결과를 친구들과 비교하고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생각해 볼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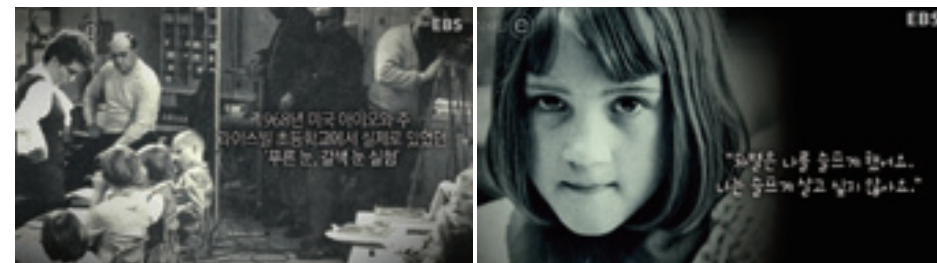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 푸른 눈, 갈색 눈 실험

1968년 미국의 한 초등학교, 제인 엘리엇이라는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푸른 눈을 가진 사람은 열등하고, 갈색 눈을 가진 사람은 더 뛰어나다고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전까지 친구였던 학생들이 푸른 눈을 가진 학생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편견을 가지고 대하자 푸른 눈을 가진 학생들은 우울감과 무력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며칠 뒤 선생님은 다시 내 말이 틀렸고, 사실은 푸른 눈을 가진 사람이 더 훌륭하다고 말을 바꿉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푸른 눈을 가진 학생들이 갈색 눈을 가진 학생들에게 이전에 자신들에게 했던 것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러자 갈색 눈을 가진 학생들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위축되어 우울감을 호소했습니다.

이 일은 흑인차별에 저항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피살되자 학생들이 인종차별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차별 상황을 만든 실험입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차별을 경험한 학생들은 차별의 부당함과 부조리를 깨닫고 생각에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동의하기 어려운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험이 한 번쯤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때 내가 느꼈던 감정을 떠올려 봅시다. 엘리엇 선생님 반의 학생들처럼 그 감정을 분노로 표출하는데 그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고 대항할 수 있는 힘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그 힘은 언젠가 내가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 출처 : EBS 지식채널 e '푸른 눈, 갈색 눈'
<http://www.ebs.co.kr/tv/show?prodId=352&lectId=10099820>

◎ 나 이런 말 들어봤어!

다른 사람들이 하는 혐오 표현을 적고, 만약 내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지 이야기 해봅시다.



◎ 그...그게 그런 뜻이었어?!

친구들이 사용하는 말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그 말의 진짜 뜻은 이런 거예요.

기모띠/
앙 기모띠

일본어로 '기분이 좋다'는 뜻으로, 한 아프리카 TV bj가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별풍선을 받으면 "앙 기모띠"라고 리액션을 하는 모습이 웃기고 재미있어서 유행어처럼 번졌는데요. 원래는 일본에서 만든 야한 동영상에서 여자를 비하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노금마

엄마 혹은 여자를 비하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

한남충

한국 남자를 벌레에 비유하여 비하하여 부르는 말.

◎ 내가 혐오나 차별적인 표현을 가장 많이 접하는 경로입니다.

내가 경험한 사례들이 있다면 어디서 그런 표현을 접했는지 적어봅시다.

어디서?	무슨 표현?
TV 프로그램	
개인방송 BJ	
인터넷 게임	
웹툰	
기타	

✿ 혐오, 쿨하지 않아!

혐오 표현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장난이나 재미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 말은 듣는 사람도 쿨한 척 가장할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흥터가 생기고, 오랜 고통을 받게 되지요.

내가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

혐오 표현 금지어 목록을 만들고, 금지해야 하는 이유를 적어봅시다.



혐오에 대처하는 자세! 가슴을 찾아 떠난 멤버~

걸 그룹의 멤버인 가수 엠버~

여자다움, 섹시함을 요구하는 걸 그룹의 콘셉트에 맞지 않는

자신의 외모를 비하하고 차별하는 악플을 다는 사람들에게

‘가슴을 찾는다’는 재미있는 동영상 만들어 역설적인 대응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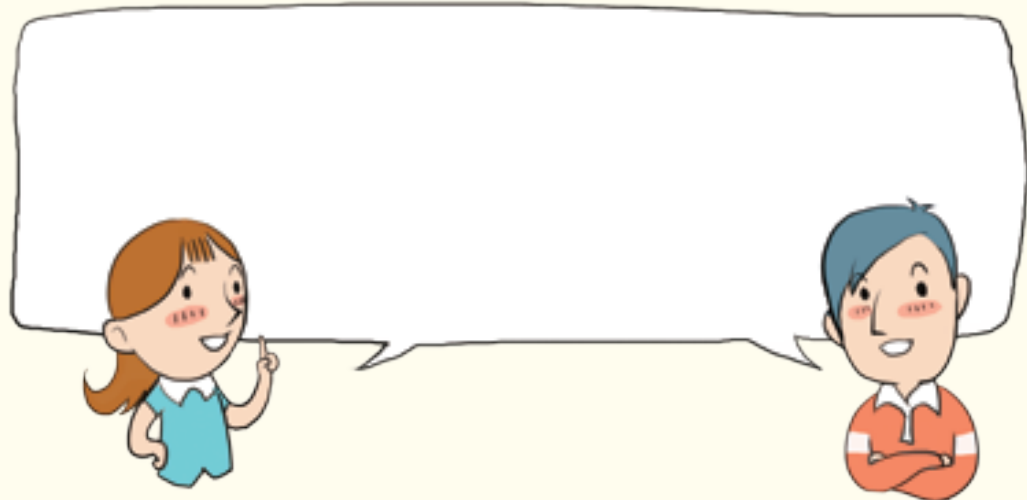
엠버가 올린 동영상을 보고 친구들과 같이 의견을 나눠봅시다.



※ <https://www.youtube.com/watch?v=SHgbU1938SE0>



!! ?! 위 내용을 보고 내 생각은 어떤지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혐오 표현을 하는 이유

요즘 인터넷이나 방송 등을 통해 혐오 표현을 배우고 따라 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친구들에게 ‘남자다운 척’, ‘센 척’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고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서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허세’ 아닐까요?

혐오 표현은 주로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지죠.

나보다 약한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으로

자신의 약한 모습을 감추려는 비겁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약자의 위치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뀌는 것입니다.

성별을 이유로, 인종을 이유로, 나이를 이유로, 지위를 이유로, 직업을 이유로...

약자의 위치는 끊임없이 변하고 이동합니다.

해외여행을 가서 아무 이유 없이 인종차별 피해를 당한 경험을 호소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나 또한 혐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혐오는 나만 비켜가지 않습니다.

혐오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일!

내가 존중 받는 가장 쉬운 방법은 똑같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성평등! 나를 나답게 자유롭게

성평등은 여자와 남자라는 성별을 떠나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성평등한 사회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저마다 다름을 인정받을 수 있죠.

성역할 고정관념이 사라지면 자연스런 감정과 욕구에 따라 행동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남자다움, 여자다움에서 벗어날 때,
차별과 편견이 사라질 때,
여자와 남자를 구분하고 가르는 대립과 갈등도 사라질 것입니다.

‘나다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것,
성평등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청소년의 성평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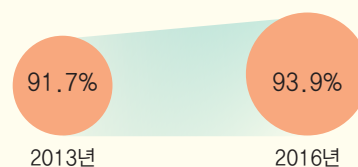
성평등에 대해 한국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 성평등 어떻게 생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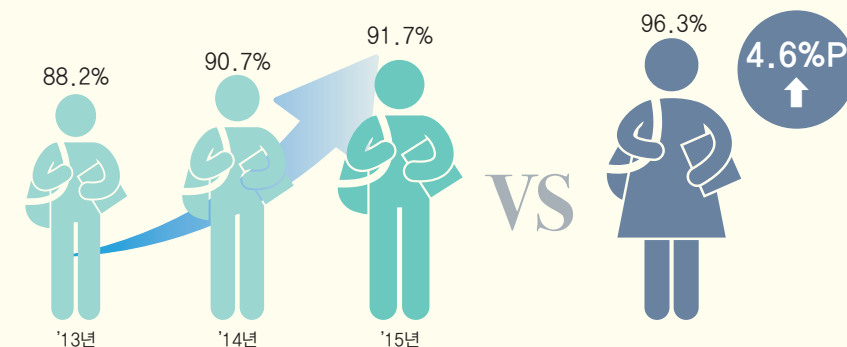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라는
양성평등인식을 가진 청소년은 93.9%로 높은 수준을 보임.

※ 출처: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2013년, 2016년 각 연도별 자료



◎ 동상이몽, 그런데 왜 남학생과 여학생은 다르지?

청소년의 성평등 인식은 어른보다 높지만 여학생과 남학생 사이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출처: 2016년 청소년 통계, 통계청·여성가족부, 대상: 초등학생(4~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차이가 없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견을 나눠봅시다.



여자다운 게 어땠어? 남자다운 게 어땠어?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성불평등은 남자, 여자,
그리고 우리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세계 곳곳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허물고
성불평등을 개선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평등 대사가 된 헤르미온느, 엠마 왓슨



UN은 2014년부터 'HeForShe'라는 성평등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에는 '어벤져스(The Avengers)'에 출연한 유명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와 톰 히들스턴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해리포터'에서 헤르미온느 역할을 했던 엠마 왓슨이 친선대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엠마 왓슨이 UN에서 한 연설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 많은 화제를 낳았는데요. 청소년기의 남자
친구들이 남자다워 보이고자 감정 표현을 하지 못해 힘들어했던 것, 여자 친구들이 여자다워 보이기 위해
운동을 그만두는 것을 지켜보았던 경험 등을 이야기하며 우리를 불편하게 억압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성인이 되어서도 남자들이 '남자답지 못하다'는 말을 들을까 두려워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고통에
시달리는 것을 목격한다며, 남자든 여자든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가 섬세하고 강하다고 느낄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성평등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위스퍼 광고

여성 생리용품을 만드는 한 회사(P&G)는 10대 소녀들을 대상으로 '여성다움'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바꾸기 위한 광고를 하였습니다. "여자답게 멈추지 마, 여자답게
물러서지마"등의 내용을 담았는데, 이 광고를 보고 여성의 70%, 남성의 60%가 '여자는
나약하다'는 이전의 고정관념을 바꿨다고 합니다. UN은 성 편견을 바꾸는데 이 광고가 큰
역할을 했다는 공로를 인정하여 상을 수여했습니다.



한국의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인 김소희 선수는 '내가 하고 싶은 운동을 하는 것이 여성다운
것이고, 나다운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다음의 박스에서 탈출하기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 뭐가 좋아질까?

그동안 성역할 고정관념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이나 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는지 서로 이야기해봅시다.



✿ '나는 나'



✿ 잠깐! 나의 성역할 고정관념 변화 체크!

지금까지 성역할 고정관념이 왜 문제인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내 생각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나의 변화 정도를 점검하고 친구들과도 비교해봅시다.

나의 성평등 지수 (10에 가까워질수록 평등에 가까움)



✿ 함께 깨워요. 나의 성평등 능력!

남자가... 여자가... 라는 말 대신
_____ 말을 할 거야!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놀리는 말 대신
_____ 말을 할 거야!

인터넷에서 본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대신
_____ 말을 할 거야!

다른 사람의 외모에 대해
평가하는 말 대신
_____ 말을 할 거야!

다른 사람의 부모님을 놀림의
대상으로 삼는 대신
_____ 말을 할 거야!



❁ 차별은 대가를 요구 한다!!

요즘 역차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자만 군대를 가야하고, 위험한 일은 남자에게 미루고,

데이트 비용도 남자가 더 내야 해서 남자가 차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바시(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서 손아람 작가는 이런 차별을 만든 사람이 사실은

남자라는 비밀을 찾아냅니다. 여자는 연약하니 남자가 군대를 가야한다고,

여자의 임금을 낮춰 데이트 비용을 더 내게 한 것도 바로 남자들이 만든 법과 문화 때문이라는 것이죠.

남자에게 더 의무를 지우고, 더 많이 일을 하게 한 책임이 남자에게 있는데

쉽게 여자 탓을 하는 것이 역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작가의 말처럼 성차별이 있는 한 남자들은 계속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비밀을 알았으니 성평등한 세상에서 서로의 의무를 나눌 수 있도록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 우리의 힘을 모아보아요.



<https://www.youtube.com/watch?v=cYuFnDyARBw>

손아람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작가이다. 지은 책으로는 영화 '소수의견'의 원작인 <소수의견>, <디 마이너스>, <포맷하시겠습니까> 등이 있다. 가수로도 활동한 적이 있어 힙합그룹 '진실이 말소된 페이지'의 멤버로 참여하였다. 여러 음반과 콘서트를 기획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고, 가수 조PD와 음반 제작을 같이 하기도 했다. 그 외도 신문에 글을 쓰고, 강연도 하며 EBS '까칠남녀'에 출연하고 있다.

❁ 우리가 열어갈 성평등한 세상을 위한 응원

지금 나는 여러분에게 현재와는 다른 세상을 꿈꾸고 계획하는 일에 함께 나서자고 요청합니다.

지금보다 좀 더 공정한 세상을, 스스로에게 좀 더 진실함으로써

좀 더 행복해진 남자들과

좀 더 행복해진 여자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딸들을 지금과는 다르게 키워야 합니다.

우리 아들들도 지금과는 다르게 키워야 합니다.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의 TED 강연 중에서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Chimamande Ngozi Adichie)

1977년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나 자란 소설가. 열아홉에 미국으로 건너가 이스턴 코네티컷 주립 대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문예창작으로, 예일 대학교에서 아프리카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12년 12월의 TED 강연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We should all be feminists)"는 유튜브에서 250만에 육박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고, 팝스타 비욘세의 노래에 피쳐링 되기도 했다.

M E M O



다른 사람이 아닌 나! 나를 나답게



GIRLS CAN BE:



AND DON'T LET ANYONE TELL YOU OTHERWISE.

누구도 다른 모습을 강요할 수는 없어. 나는 나답게!

©elisegravel

출처 : <http://elisegravel.com/en/blog/girls-can-be/>

BOYS

CAN BE:

감성적인



잘 돌보는



조용한



다정한



세련된



몽상가



점이 많은



정다운



아름다운



AND DON'T LET ANYONE TELL YOU OTHERWISE.

누구도 다른 모습을 강요할 수는 없어. 나는 나답게!

©elisegravel

선생님을 위한 활용 팁!

이 가이드북은 중학생의 성평등 인식 함양을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청소년기는 어릴 때부터 형성되어온 성역할 고정관념이 고착화되는
마지막 발달 단계로, 이 시기의 성 인식은 이후 성년기 사고의 기초가 되므로
이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은 성역할 고정관념이 청소년들의 일상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이 가져오는 불편한 결과와 관계의 왜곡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함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평소 의식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일상에 작동하는 성별인식을 확인하고 또래친구들과 토론해 봄으로써
성별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혐오현상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성별을 떠나 서로를 배려하며 공존할 수 있도록
성찰해 볼 수 있는 내용을 더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양성평등을 다루는 관련 교과와 병행하여 사용하거나,
동아리 활동이나 수련행사 등과 같은 기회에
별개의 지도안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평등한 사회에서는
여자이건 남자이건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청소년들이 여성다움, 남성다움이라는 갑갑한 옷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역할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